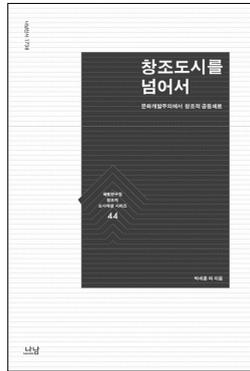


서평

이 땅에 굳게 선 창조도시론을 기대하며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개발주의에서 창조적 공동체로』*(나남, 2014)

김홍순**



문화란 무엇인가? 영어의 culture는 라틴어의 cultura, cultus에서 나온 단어로 cultivation과 어원이 같다. 따라서 세련이나 교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작, 배양, 육성, 생활처럼 우리네 소소한 일상과 연결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문화라고 하면 종종 형이상학적인 무엇, 대체로 예술 활동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문화는 예술이라는 협소한 범위로 한정하기 어려운, 인간생활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바그너의 악극이 문화인 것처럼 동네 전통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

* 이 책은 2014년도 '문화부 세종도서(구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음.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soon@hanyang.ac.kr)

량을 벌이는 우리네 모습 또한 문화의 일부인 것이다. 문화인류학은 특정 문화의 타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부인한다. 따라서 예술의 전당 무대 위의 발레공연이 가락시장 경매인의 분주한 손놀림보다 수준 높은 몸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개발주의에서 창조적 공동체로』는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속류 문화담론의 오용을 비판하고 대안적 방도를 모색한 역저다. 문화개발주의와 창조도시에 대한 상찬 일색인 학계 분위기에서 열 명의 내로라하는 이론가와 활동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이 책의 의미는 매우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이론-실천-과제로 이어지는 책의 구성은 가히 한국 창조도시론의 알파와 오메가라 칭할 만하다. 김원배 교수의 중후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서장은 이 책이 끝내 창조도시의 한국적 모형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어지는 남기범 교수의 창조도시에 대한 비판적 독해 역시 창조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례보고로서 차재근, 류태희 선생의 부산 또따또가와 대구 신택리지 프로젝트 리포트 또한 한국형 문화재생의 전범을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책을 다 읽은 시점에서 이 책이 내가 평소에 품고 있던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주지는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책을 닦하기에 앞서 필자의 이둔한 독해력을 닦아야 하는 것이 먼저인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장황하게 문화의 의미를 되새겨 본 것은 필자의 다수가 여전히 문화를 피안의 무엇 또는 예술활동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어원에서 본 것처럼 문화는 성소에 모셔진 고귀한 성상이 아니다. 우리의 거친 생업현장이 다름 아닌 문화라는 것을 필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은 다시 성상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원적으로 돈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현상이고 원동력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기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클린턴의 슬로건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경제다.

17세기 서유럽 북해 연안의 저지대 지방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력을 토대로 미술사에 획을 그을 만한 화단과 화풍을 구축했다. 루벤스나 렘브란트는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이 집에 그림을 하나, 둘 씩 걸어두면서 지역의 그림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탁월한 화가들이 배출되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Girl With A Pearl Earring)>(2003)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17세기 델프트(Delft) 지방에서 활동했던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Jan Vermeer)의 동명 그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소설)다. 영화도 아름답지만, 내가 주목했던 것은 그 당시 네덜란드 화단의 경제경관이다. 베르메르의 장모는 오늘날로 치면 베르메르의 기획사 대표다. 그림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주요 고객과의 협상과 로비도 서슴치 않는다. 우수고객에 의한 선주문 방식으로 제작된 그림이 바로 '진주 귀걸이'다. 대금을 지불한 고객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 제작과정에 간섭을 한다. 이 영화는 결국 예술과 돈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림 만들기 역시 상품 생산과정의 일부일 뿐임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예술가들이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들도 먹어야 산다[엔젤스는 마르크스를 위한 조사(弔辭)에서 마르크스가 형이상학적인 것에 우선해서 먹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밝힌 것이 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진주 귀걸이'는 화가가 장인 수공업자에서 분화된 직후 시기를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 문화전략이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은 저급한 문화전략이라는 가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부산의 또따또가나 감천문화마을, 대구의 신택리지 프로젝트처럼 성공한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 역시 외부로부터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는가? 소규모 주민주도의 프로젝트는 올바른 재생전략이고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는 잘못된 전략이라는 일반론에도 의구심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메가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문화의 외피를 뒤집어 쓴 개발주의 전략의 소산이라는 점에는 동의하

지만 빌바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앵커(anchor) 효과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론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을 두고 비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 주민주도 전략이 언제나 정당한 것도 아님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민들 역시 이 기함에 의해 움직이는 욕망의 주체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활동가 주도의 프로젝트를, 활동가의 말을 잘 따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일컬어 주민주도라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적으로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그르고 세입자는 옳다는 논리 역시 지나친 단순화일 뿐이다. 오히려 뜨내기 임차인보다 토지소유자가 지역의 변화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갖는 경우가 많다.

역설적으로 나는 ‘컬쳐노믹스’와 같은 노골적인 슬로건으로 문화와 돈벌이의 썸법을 말하는 문화개발주의자들의 논리가 오히려 명쾌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순박한 얼굴로 내지르는 모든 욕망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맥락에서 필자들의 논지는 솔직히 내게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그래서 자본으로부터 초연한 상열(相悅, convivial)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인가? ‘문화개발주의’식 인파이팅을 용서하시라! 그게 뭔데? 그게 왜 좋은데? 그게 가능한가?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한 건데?

부산 또따또가 공동체가 그 유력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사키 교수팀이 말했듯이 “하나의 혁명”이라고 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따또가나 내가 좋아하는 선택리지 프로젝트 역시 대안적 실천의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김승옥 식 표현을 빌리자면 “입찰지대(bid rent)는 힘이 세기” 때문이다. 모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목표는 살기(놀이, 일하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물리적 개발주의든 문화적 재생이든 상관없다. 공간은 상품이고 상품의 존재론적 실현(필사의 도약)을 위해서는 팔려야 하는데, 팔리기 위해서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따또가의 토지 소유자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직진이 아닌 우회로를 선택했을 뿐이다. 누구나 ‘좋은 곳’에서 머무

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제한적이다. 당연히 입지경쟁이 이루어지고 지가와 임대료가 올라간다. 올라간 임대료는 지역을 ‘좋은 곳’으로 만든 어메니티 요소를 지역에서 구축한다. 지불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호에서 봤고 홍대지역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다. 남겨진 공간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점령된 범상한 공간으로 퇴행한다. 주민들이 싫어할까? 토지소유주들은 분명 좋아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일시적으로 아쉬워하겠지만 곧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달달해진 상업적 경관에 오히려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팔리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자본의 능력을 앞잡아 바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가? 나는 또따또가의 가장 큰 성공요인이 참여자들의 자발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재화(박제화)된 공간 만들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좋아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역개발’ 아니던가?

일찍이 까스텔은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이 지배하는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부유하는(foot-loose) 자본에 대해 지역이 우월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의 환경(innovative milieux)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역에 착근되고 네트워크화된 고유의 기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역량일 수도 있고, 지역 고유의 어메니티일 수도 있다. 까스텔의 제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하비 역시 『반란의 도시(Cities of Rebel)』에서 지역이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 즉 독점지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지 않았던가? 대안적 창조도시론이 착목해야 할 문화, 문화적 재생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내재된 고유의 자원 만들기! 물론 문화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화인가, 누구를 위한 문화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들의 방향은 큰 틀에서 옳다. 하지만 아직은 과정이다. 사사키가 일본 특유의 내발적 지역발전의 전통 위에서 대안적 창조도시론을 주체화한 것처럼 지금 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연대와 조직화라는 슬로건에 채워 넣을 구체적인 각론이다. 필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